

한국사 기출해설 (A책형)

해설 - 설민석 교수(단꿈교육)

1. <보기>에서 설명하는 구석기 유적은?

이곳에서는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굴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세계의 전기구석기 문화가 유럽·아프리카 아슐리안 전통과 동아시아 지역의 짝개 문화로 나뉜다는 고고학계의 학설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다.

- ① 공주 석장리 유적
- ② 연천 전곡리 유적
- ③ 청원 두루봉 동굴 유적
- ④ 단양 상시리 바위그늘 유적

1. 정답 ② 구석기 유적(선사 시대)

해설 ② 전기 구석기 유적지인 경기 연천 전곡리에서 동아시아 지역 최초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출토되었다. 이를 통하여 동아시아를 짝개 문화권으로 규정했던 모비우스 학설을 부정할 수 있게 되었다.

오답해설 ① 공주 석장리 유적은 전기~후기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지이다. 석기와 함께 동물의 뼈 화석 등을 통해 구석기 시대의 생활상을 살필 수 있다.

③ 청원 두루봉 동굴은 구석기 시대 후기의 대표적인 유적지이다. 이곳에서는 어린아이의 인골(홍수 아이)이 출토되었다.

④ 단양 상시리 바위그늘 유적은 4개가 발견되었지만, 이중 3개의 바위그늘만 발굴이 이루어졌다. 이중 1곳은 구석기 유적, 2곳은 신석기 유적으로 밝혀졌다.

2. <보기> 자료의 정책을 시행한 국왕이 발행한 화폐로 가장 옳은 것은?

주전도감에서 아뢰기를, “나라 사람들이 비로소 전폐(錢幣) 사용의 이로움을 알아 편리하게 되었으니 바라건대 종묘에 고하소서.”라고 하였다. 이 해에 또한 은병을 사용하여 화폐로 삼았는데, 그 제도는 은 1근으로 만들고, 형상은 우리나라 지형으로 하였으며, 속칭 활구라고 하였다.

- ① 건원중보
- ② 상평통보
- ③ 조선통보
- ④ 해동통보

2. 정답 : ④ 고려 시대의 화폐(고려 - 경제사)

해설 ‘주전도감에서 은병(활구)을 만들었다’는 내용을 통해 고려 숙종(제15대, 1095~1105)에 대한 설명임을 알 수 있다.

④ 고려 숙종 때 대각국사 의천의 주전론을 바탕으로 주전도감을 설치하였다. 은 1근으로 은병(활구)을 만들어 유통시켰으며, 삼한통보·해동중보·삼한중보·동국통보·동국중보 등의 동전을 주조하였다.

오답해설 ① 건원증보는 996년(성종 15)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주조된 화폐이다.

② 상평통보는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화폐이다. 1633년(인조 11)에 김신국·김육 등의 건의로 처음 주조되었으며, 이후 숙종 대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③ 조선통보는 조선 세종 때, 인조 때 주조 및 유통된 화폐이다.

3. <보기>의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가)를 역을 피하는 곳으로 삼거니와, 어쩌다 글을 아는 자가 있어도 도리어 (가)에 이름을 두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온갖 방법으로 교묘히 피하므로, 훈도·교수가 되는 자가 초동(樵童)·목수(牧豎)의 나머지를 몰아다가 그 부족한 수를 채워 살아갈 길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중종실록』

① 군현의 인구비례로 정원을 배정하였다.

② 천민도 입학이 허가되었다.

③ 국가의 사액을 받으면 면세의 특권이 주어졌다.

④ 성적이 우수한 자는 문과 복시에 바로 응시할 수 있었다.

3. 정답 : ① 조선의 교육 기관(조선 - 사회사)

해설 역(役)을 피하는 곳으로 삼으며, 훈도·교수가 있음을 통하여 (가)가 조선 시대의 향교임을 알 수 있다. 조선 시대 지방 교육 기관인 향교는 중6품의 교수와 정9품의 훈도(訓導)를 두었다.

① 향교는 군현의 인구비례로 정원을 배정하였다. 향교의 입학 정원은 고을의 위상과 크기에 따라 차이가 났는데, 부(府)·대도호부(大都護府)·목(牧)의 경우는 90명, 도호부(都護府)는 70명, 군(郡)은 50명, 현(縣)은 30명의 학생을 수용하도록 하였다.

오답해설 ② 향교 입학은 양인 이상만이 가능했기 때문에 천민은 입학을 할 수 없었다.

③ 국가의 사액(賜額)을 받고, 면세의 특권을 가진 기관은 서원이다. 또한 서원에 등록된 인원은 면역(免役)이 되었다.

④ 대과(문과)의 2차 시험인 복시는 대과(문과)의 1차 시험인 초시에서 선발된 240명만이 응시가 가능하였다. 또한 성균관 유생 중 성적이 우수한 자는 바로 복시에 응시할 수 있었다.

4. <보기>는 한국 고대사회 문화의 일본 전파와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ㄱ. 백제의 아직기는 일본에 불교를 전파하였다.
ㄴ. 다카마쓰 무덤에서 발견된 벽화를 통해 가야문화가 일본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ㄷ. 신라인들은 배를 만드는 조선술과 제방을 만드는 축제술을 일본에 전해주었다.
ㄹ. 고구려의 승려 혜자는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4. 정답 ④ 고대 문화의 일본 전파(삼국 - 문화사)

해설 ㄷ. 신라인들의 조선술(배를 만드는 기술)과 축제술(제방을 만드는 기술)은 일본에 전파되었다. 특히 신라인의 발전된 축제술은 ‘한인의 연못’이라는 이름까지 생기게 하였다.

ㄹ. 고구려의 승려 혜자는 일본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었으며, 일본 아스카 불교 발전에 기여하였다.
오답해설 ㄱ. 백제의 아직기는 일본에 『논어』와 『천자문』을 전하였다. 일본에 불교를 전파한 인물은 백제 성왕 때의 사신인 노리사치계이다.

ㄴ. 다카마쓰 고분 벽화의 주름치마는 고구려 수산리 고분벽화의 주름치마와 비슷하다. 이를 통하여 고구려 문화가 일본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5. <보기>의 내용이 추구되었던 제4공화국 시기의 정치 상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ㄱ. 10월 유신
 ㄴ. 100억 불 수출
 ㄷ. 1000불 소득

- ①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의 간접선거로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② 비상계엄하에서 제정되어 국민투표로 확정된 헌법이 시행되었다.
 ③ 정권에 반대하는 교수, 종교인 등이 긴급조치로 투옥 혹은 해직되었다.
 ④ 학생, 지식인, 언론, 종교단체, 야당 등의 반대 속에서 한일협정이 조인되었다.

5. 정답 ④ 제4공화국 시기의 정치 상황(현대 - 정치사)

해설 제4공화국은 1972년 10월 유신으로 수립되었으며, 제5공화국이 출범한 1981년 3월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즉, 제4공화국의 시기는 1972년 12월부터 1981년 3월까지이다.

④ 한일 협정은 제3공화국 시기인 1965년 6월에 체결되었다. 그러나 당시 협정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공식 사과와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 및 체결되었기 때문에 학생, 지식인, 언론, 종교단체, 야당 등이 크게 반대를 하였다.

6. <보기>는 개항 이후 경제 상황이다. 시간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청 상인들이 내지 통상권을 획득하였다.
 ㄴ. 일본인 재정 고문이 화폐 정리 사업을 추진하였다.
 ㄷ. 대한천일은행이 고종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설립되었다.
 ㄹ. 일본 상인들이 개항장 중심의 거류지 무역을 시작하였다.

-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ㄱ - ㄷ - ㄴ - ㄹ
 ③ ㄹ - ㄱ - ㄷ - ㄴ ④ ㄹ - ㄱ - ㄴ - ㄷ

6. 정답 ③ 개항 이후의 경제 상황(근대 - 경제사)

해설 ㄹ. 1876년 「조일 수호 조규 부록」에서는 간행이정 10리를 명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외국 상인들은 개항장을 중심으로 10리 이내에서만 통상이 가능하였고, 내지 통상은 불가능하였다. 이와 같은 거류지 무역이 전개되자 객주·여각·보부상을 중심으로 중계무역이 전개되었다.

ㄱ. 임오군란 이후 체결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1882)을 통하여 청 상인들은 내지 통상권을 획득하였다.

ㄴ. 개항 이후 일본 금융의 침투가 심화되자, 이를 막고자 민족 자본으로 은행을 설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1899년에 고종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대한 천일 은행이 설립되었다.

ㄴ. 제1차 한·일 협약(1904. 8.)으로 파견된 재정 고문 메가타는 1905년에 화폐 정리 사업을 추진하였다. 화폐 정리 사업의 결과 국내 상공업자와 금융 기관이 크게 위축되었다.

7. <보기>의 사건을 시간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제13대 대통령 선거
ㄴ. 4·13 호헌 조치 발표
ㄷ.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ㄹ.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 본부의 결성

① ㄴ - ㄱ - ㄷ - ㄹ

② ㄴ - ㄷ - ㄱ - ㄹ

③ ㄷ - ㄴ - ㄹ - ㄱ

④ ㄷ - ㄹ - ㄴ - ㄱ

7. 정답 ③ 6월 민주 항쟁(현대 - 정치사)

해설 ㄷ. 1987년 1월, 서울대생 박종철이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고문·폭행으로 사망하였다. 당시 공안당국은 조직적인 은폐를 시도하였으나, 진상이 폭로되었고,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은 1987년 6월 민주 항쟁의 계기가 되었다.

ㄴ. 국민들은 전두환 정부에게 대통령 직선제 등의 개헌을 통한 민주화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은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거부하며, 1987년 4월 13일에 4·13 호헌 조치를 발표하였다.

ㄹ. 1987년 5월 27일에 전두환 정부의 4·13 호헌 조치 철회와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을 위해 야당 정치인, 시민 단체, 학생, 종교계 인사들이 모여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 본부를 결성하였다.

ㄱ.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의 결과, 6·29 민주화 선언이 이루어졌으며, 민주화와 직선제 개헌(9차 개헌)이 전개되었다. 이후 1987년 12월에 제13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으며,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8. 산미증식계획의 영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식민지 조선 내에서 부족해진 식량은 만주에서 조, 수수, 콩 등의 잡곡을 수입해서 메꾸었다.

② 대한제국 정부와 황실의 땅 등 모든 국유지는 물론 황무지나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땅들도 모두 조선총독부로 귀속시켰다.

③ 소작 농민들은 고율의 소작료 외에도 수리조합비를 비롯한 여러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④ 지주들은 일본으로의 쌀 수출을 통해 이익을 증대시켰다.

8. 정답 ② 산미증식계획(일제강점기 - 경제사)

해설 ② 일제는 신고주의를 원칙으로 토지 조사 사업(1912~1918)을 전개하여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였다. 그러나 당시 대부분의 한국 농민들은 신고주의 및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다. 또한 신고 기간이 짧았으며, 토지 소유가 불분명한 토지(마을 공유지, 황무지, 공공 기관의 토지 등)는 신고가 어려웠다. 그 결과 많은 토지가 신고되지 못하였고, 조선 총독부는 해당 토지를 국유지로 처리하여 조선 총독부로 귀속시켰다.

오답해설 ① 일제는 자국의 쌀 부족 현상을 극복하고자 식민지 조선에 산미증식계획을 전개하였다. 식민지 조선의 쌀 생산량을 늘려 일본으로 공급하는 취지였으나, 결과적으로 일제는 증산량 보다 더 많은 쌀을 수탈하였다. 산미증식계획의 결과 조선의 식량 부족 현상이 심각해졌고, 일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만주에서

③ 조선 총독부는 토지 개량 사업과 농사 개량 사업을 통해 산미증식계획을 전개하였다. 또한 경작지를 확대하기 위해 관개 사업으로 수리 조합 사업에 주력하였는데, 이 가운데 수리조합비를 비롯한 여러 비용들은 조선의 소작 농민들이 부담해야 했다.

해설 ㄱ. 조선은 면·리·통을 두고, 서로 이웃하고 있는 다섯 집을 1통으로 편제하는 오가작통제를 실시하였다.

ㄴ. 조선은 권력의 집중과 전횡을 막고자 친족 간의 같은 관청에서 근무할 수 없으며, 연고지에 발령될 수 없는 상피제를 시행하였다.

ㄷ. 조선 시대의 향리는 고려 시대에 비해 지위가 격하되어 수령의 행정 실무를 보좌하였다.

오답해설 ㄹ. 경제소는 조선 시대 지방의 유향소를 관리 및 통제하기 위해 한양에 설치된 중앙 기구이다. 각 군현에 지방민의 자치를 허용하기 위해 설치된 것은 유향소이다.

11. <보기>의 기사와 관련된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우리의 빈약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하노라.……나는 큰 원인이 있음을 간파하였으니, 즉 자작자급(自作自給)치 아니함이라 하노라. 환언하면 조선 물산을 장려치 아니함이니 고로 오인(吾人)이 이에 대서특서(大書特書)하고 절규 고창하는 바는 자작자급 하자 함이니 즉 조선 물산을 장려함이 또 환언하면 보호무역을 의미함이니 이것이 조선인의 가장 큰 문제라 하노라.

- ① 500여 명의 인사가 민립대학설립기성회를 만들고 모금운동에 나섰다.
- ② “조선인이 만든 것을 입고, 먹고, 쓰자”라는 구호를 내세웠고 민족자본을 육성하려 하였다.
- ③ 대구에서 서상돈 등이 국민성금으로 국채를 갚자는 운동을 일으켰다.
- ④ 조선어학회가 참여하였으며, 전국 규모의 문맹퇴치운동을 전개하였다.

11. 정답 ② 물산 장려 운동(일제 강점기 - 경제사)

해설 제세된 자료에서 ‘조선 물산의 장려’, ‘자급자족’ 등의 내용을 통하여 <보기>의 기사와 관련된 운동은 물산 장려 운동임을 알 수 있다.

② 물산 장려 운동은 ‘조선인이 만든 것을 입고, 먹고 쓰자’, ‘내 살림 내 것으로’ 등의 구호를 앞세워 민족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토산품 애용, 근검 저축, 금주·단연 등을 주장하였다.

오답해설 ① 제2차 조선 교육령에 따라 고등 교육이 가능해지자 이상재, 한용운 등은 민립 대학 기성회를 조직하여 우리 민족의 힘으로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였다. 민립 대학 기성회는 ‘한민족 1,000만이 한 사람 1원씩’이라는 구호를 앞세워 전국적인 모금 운동을 전개하였다.

③ 일제의 경제적 예측이 더욱 심해지자, 국민의 성금으로 국채를 갚고 국권을 지키자는 국채 보상 운동이 전개되었다. 서상돈 등을 중심으로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 보상 운동은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등 언론기관의 적극적인 홍보에 힘입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④ 1920년대 말부터 1934년까지 언론 기관을 중심으로 문맹 퇴치를 위한 농촌 계몽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조선일보는 문자 보급 운동을, 동아일보는 브나로드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농촌 계몽을 전개하였다. 조선어 학회도 문맹 퇴치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문자 보급을 위한 교재를 제작하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한글 강습회를 열었다.

12. <보기>의 (가), (나)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 구삼국사를 얻어 동명왕본기를 보니 그 신이한 사적이 세상에 전하는 것보다 더 하였다. 그러나 처음에는 믿지 못해 귀환(鬼幻)으로만 여겼는데, 세 번 반복하여 읽어서 점점 그 근원에 들어가니, 환(幻)이 아니고 성(聖)이며 귀(鬼)가 아니고 신(神)이었다. …… 이것을 기술하지 않으면 후인들이 장차 무엇을 볼 것인가.

(나) 부여씨가 망하고 고씨가 망하자 김씨가 그 남쪽을 영유하였고, 대씨가 그 북쪽을 영유하

여 발해라 하였다. 이것이 남북국이라 부르는 것으로, 마땅히 남북국사가 있어야 했음에도 고려가 이를 편찬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이다. 무릇 대씨가 누구인가? 바로 고구려 사람이다. 그가 소유한 땅은 누구의 땅인가? 바로 고구려 땅이다.

- ① (가) - 고구려 계승 의식이 반영되었다.
- ② (가) - 연대순으로 기록하는 편년체로 서술되었다.
- ③ (나) - 발해사를 우리 역사로 인식하였다.
- ④ (나) -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12. 정답 ② 동명왕편, 발해고(고려 - 문화사)

해설 제시된 자료에서 (가)는 '구삼국사를 얻어 동명왕본기를 보니'의 내용을 통하여 『동명왕편』 서문, (나)는 '남북국', '마땅히 남북국사가 있어야 했음에도', 등의 내용을 통하여 『발해고』 서문임을 알 수 있다. ② 『동명왕편』은 고구려를 건국한 동명왕(주몽)의 업적을 칭송한 영웅 서사시이다. 서장에서는 동명왕 탄생이전의 계보를, 본장에서는 동명왕의 출생과 건국까지를, 종장에서는 2대 왕인 유리왕이 왕위에 오른 과정과 이규보 자신이 동명왕 관련 기록을 보고 느낀 점을 서술하였다.

오답해설 ① 이규보는 『삼국사기』에서 제외된 고구려 동명왕에 관한 신이한 건국 설화를 서술하여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하였다는 자부심을 나타내었다.

③, ④ 유득공은 『발해고』에서 통일 신라와 발해가 병립한 시기를 남북국 시대로 처음으로 설정하여 발해를 우리 역사로 인식하였다.

13. <보기>의 조치를 시행한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노산대군의 시호를 올리고 (중략) 묘호를 단종이라 하였다.
- 임금이 친히 명나라 신종 황제를 제사하였다.
- 충무공 이순신의 사우(祠宇)에 '현충'이라는 호를 내렸다.

- ① 왕권 강화를 위해 수시로 환국을 단행하였다.
- ② 수원에 새로운 성곽도시인 화성을 건설하였다.
- ③ 명의 요청을 수용하여 중국에 원병을 파견하였다.
- ④ 백성들의 군역 부담 완화를 위해 균역법을 시행했다.

13. 정답 ① 조선 숙종(조선 - 정치사)

해설 조선 숙종은 1681년에 노산군으로 강등되었던 단종을 노산대군을 추봉하였고, 1698년에 신규의 상소에 따라 묘호를 '단종(端宗)'으로 추증하고, 능호를 장릉(莊陵)이라 하였다. 또한 대보단을 설치하여 임진왜란 때 원병을 파견한 명나라 신종을 제사지냈으며, 충청도 아산에 세워진 이순신의 사당에 '현충(顯忠)'이라는 호를 내렸다.

① 숙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 수시로 환국을 단행하였다. 1680년에는 유악 사건 등을 계기로 남인을 처벌하고 서인으로 정권을 교체시켰으며(경신환국), 1689년에는 장희빈의 아들을 원자(元子)로 삼는 것에 반대한 서인을 몰아내고 남인을 등용하였다(기사환국). 1694년에는 폐위한 인연왕후를 다시 왕비로 맞아들이고, 남인에서 서인으로 정권을 교체시켰는데 이를 갑술환국이라고 한다.

오답해설 ② 정조는 수원에 화성을 건설하여 정치적·군사적 기능을 부여함과 동시에 상공인을 유치하여 개혁 정치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하였다.

③ 후금이 명나라에 전쟁을 포고하자, 명나라는 조선에 원군을 요청하였다. 광해군은 강홍립을 도원수로 삼

아 명나라를 지원하되, 적극적으로 나서지 말고 상황에 따라 대처하도록 하였다.

④ 영조는 군역의 폐단을 시정하고, 백성들의 군역 부담 완화를 위해 1년에 1필로 군포를 줄이는 군역법을 시행하였다. 줄어든 국가 재정은 결작, 어염세, 선박세, 선무군관포 등으로 보충하였다.

14. <보기>의 정책이 실시된 왕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백성들이 2필의 응역(應役)에 괴로워하였기 때문에 ... 그 폐단을 줄이려 하였으나 오래도록 결말이 나지 않았다. 이에 1필을 감하고 어(漁)·염(鹽)·선(船)에 세를 거두어 그 감액을 보충하려 하였다. 아! 예부터 민역(民役)을 줄이는 방도는 경비를 절약하여 백성을 넉넉하게 해주는 것보다 나은 방도가 없는 것이다.

- ① 자의대비의 복제 문제를 둘러싸고 예송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 ② 국제 정세를 이용하여 명과 후금의 사이에서 중립 외교정책을 취하였다.
- ③ 호포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창경궁 홍화문에 나아가 백성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 ④ 흉년을 당해 결식하거나 버려진 아이들을 구휼하기 위하여 『자휼전칙』을 반포하였다.

14. 정답 : ③ 영조(조선 - 정치사)

해설 제시된 자료는 『영조실록』 1750년(영조 26) 기록으로 ‘백성들이 2필의 응역(應役)에 괴로워하였기 때문에’, ‘1필로 감하고’ 등을 통하여 군역법 시행과 관련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③ 영조는 백성들의 군역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창경궁 홍화문 앞에 가서 백성, 유생 등에게 군역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는 등 적극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원래 영조는 집집마다 군포를 납부하는 호포제를 실시하려 하였지만 양반층의 반발로 실시하지 못하였고, 백성들이 부담하는 군포 2필을 1필로 줄이는 군역법을 실시하였다.

오답해설 ① 예송은 효종과 효종 비가 사망하자 인조의 계비(繼妃)인 자의대비의 복상 기간을 둘러싼 서인과 남인 사이의 논쟁이었다. 예송 당시 서인은 효종이 적장자가 아님을 들어 왕과 사대부에게 동일한 예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남인은 왕과 사대부에게는 다른 예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광해군은 대외적으로는 명나라가 쇠약해지고, 후금이 강성해지는 국제 정세의 변화를 살피면서 중립 외교를 추진하여 국가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④ 정조는 흉년을 당해 결식하거나 버려진 아이들을 구휼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한 『자휼전칙』을 반포하였다.

15. <보기>의 정강을 내세운 개혁 운동의 결과로 가장 옳은 것은?

- 대원군을 돌아오게 하고 청에 대한 조공을 폐지한다.
-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 평등의 권리를 제정한다.
- 재정은 모두 호조에서 관할하게 한다.
- 대신들은 의정부에 모여서 법령을 의결한다.

- ①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되었다.
- ② 일본에 수신사와 조사시찰단을 파견하였다.
- ③ 이만손을 필두로 한 영남 유생들이 만인소를 올렸다.
- ④ 청·일 양국은 군대 파견시, 상호 통보기로 합의하였다.

15. 정답 ④ 14개조 개혁 정강(근대 - 정치사)

해설 제시된 자료는 1884년에 전개된 갑신정변 때 발표된 14개조 개혁 정강의 내용이다.

④ 갑신정변의 결과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텐진 조약이 체결되었다. 텐진 조약은 청·일 양군이 공동으로 철수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양국 중 한 국가가 출병할 시 동시 출병하도록 하였다.

오답해설 ① 임오군란의 결과 조선과 청나라 상인이 무역 통상을 규정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되었다.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으로 청나라 상인들은 조선의 한성 및 양화진에서 상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② 수신사는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 일본에 파견된 외교 사절이다. 제1차는 1876년에 파견되어 일본의 신식 기관과 시설을 시찰하였고, 제2차는 일본 정부의 의도와 개화 상황을 살펴보고자 파견되었다. 제3차는 임오군란 때 일본이 피해를 본 것에 대한 사과의 뜻을 표하기 위하여 파견되었으며, 조사 시찰단은 근대 산업 시설을 시찰하기 위하여 1881년에 파견되었다.

③ 1880년에 제2차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 귀국하면서 『조선책략』을 가지고 돌아와 고종에게 바치자, 이만손 등은 『조선책략』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서양과의 교류를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

16. 1948년 남북 협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ㄱ.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와 2차 미·소공동위원회 사이에 추진되었다.
ㄴ. 좌·우 정치세력의 합작을 위한 7원칙을 발표하였다.
ㄷ. 김구, 김규식 등이 평양에서 열린 회의에 참여하였다.
ㄹ. 회의 결과, 미·소 양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 ① ㄱ, ㄴ
③ ㄴ, ㄷ

- ② ㄱ, ㄹ
④ ㄷ, ㄹ

16. 정답 ④ 남북 협상(현대 - 정치사)

해설 ㄷ. 유엔 소총회에서 선거가 가능한 남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하도록 결정하자, 김구와 김규식 등은 통일 정부 수립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북한의 김일성, 김두봉에게 남북 협상을 제의하였다. 북한의 김일성, 김두봉이 제안에 응하자 김구와 김규식 등은 우익 단체와 미군정의 반대를 무릅쓰고, 평양에서 열린 남·북 조선 제(諸)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협의회에 참여하였다.

ㄹ. 남·북 조선 제(諸)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협의회 결과 남북한 지도자들은 외국 군대 철수, 임시 정부 수립, 남한만의 단독 선거 반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오답해설 ㄱ.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는 1946년 3월~5월에 개최되었고,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는 1947년 7월~12월에 개최되었다.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 결렬 이후 남북 협상이 추진되었다.

ㄴ. 좌·우 합작 위원회에서는 1946년 10월에 좌익의 5원칙과 우익의 8원칙을 절충하여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다.

17. 고려시대 신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왕실과 혼인을 통해 외척이 되어 대대로 특권을 누리는 문벌가문이 나타났다.
② 상층 향리인 호장층은 지방세력 가운데 과거 합격률이 가장 높아 관료를 배출하는 모체가 되었다.
③ 서민이 손쉽게 출세하는 벼슬은 궁궐의 잡무를 맡은 서리층으로 이를 산관이라 했다.

- ④ 광산에서 일하는 광부를 철간, 어부를 생선간, 소금 굽는 염부를 염간, 목축하는 사람을 목자간, 뱃사공을 진척이라 불렀다.

17. 정답 ③ 고려 시대 신분 제도(고려 - 사회사)

해설 ③ 고려 시대의 산관(散官)은 전직 관리를 말한다. 고려 시대에는 법적으로 양인 이상이면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제술과에 귀족과 상층 향리의 자제들이 응시하였고, 농민은 주로 잡과에 응시하였다.

오답해설 ① 고려 시대의 문벌 귀족은 대부분 고려 개국에 공을 세운 지방 호족 출신이거나 신라의 6두품 출신으로 개경에서 고위 관직을 바탕으로 정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이들은 관직을 대대로 세습하거나 왕실 또는 위세가 높은 가문끼리 중첩 결혼을 통하여 권력을 유지하였다.

② 호장은 향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계층으로,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행정을 담당하면서 수령의 역할을 대신하였다. 이들은 지방 세력 가운데 과거 합격률이 가장 높아 관료를 배출하는 모체가 되었다.

④ 고려 시대에는 광산에서 일하는 광부를 철간, 어부를 생선간, 소금을 굽는 염부를 염간, 목축하는 사람을 목자간, 봉화를 다루는 사람을 봉화간, 뱃사공을 진척이라 불렀다

18. <보기>의 결정을 내린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첫째, 한국을 독립국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 둘째, 한국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 셋째,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의 4개국이 공동 관리하는 최고 5년 기한의 신탁통치를 시행한다.

- ①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개최하였다.
 ② 미국, 영국, 소련 세 나라의 외무장관이 참석하였다.
 ③ 한국의 신탁통치에 대하여 처음 국제적으로 논의하였다.
 ④ 이 회의의 결정 소식은 국내 좌우익의 극심한 분열을 일으켰다.

18. 정답 ③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현대 - 정치사)

해설 제시된 자료는 1945년 12월에 열린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문이다.

③ 1945년 2월에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중국의 장제스 총통은 얄타에서 회담을 하여 소련의 대일전 참가를 결의하였다. 또한 미국은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 미국과 소련 양군이 한반도의 남과 북에 각각 진주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최초로 한반도에 대한 신탁통치를 언급하였다.

오답해설 ①, ② 1945년 12월에 미국, 영국, 소련의 3국 외상이 모스크바에 모여 한반도 문제를 협의하였다(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④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에서는 임시 정부의 수립과 이를 지원하는 위한 미·소 공동 위원회를 설치하고, 미국·영국·중국·소련의 4개국이 최대 5년간 신탁 통치할 것을 결의하였다. 동아일보에서는 신탁 통치만을 부각하며 소련이 신탁 통치를 주장하였다는 오보를 실었으며,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 사항을 두고 좌익과 우익 사이에는 격렬한 대립이 일어났다.

19. <보기> 이야기의 아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오래도록 후사를 이을 아들이 없어 이 절의 관음보살 앞에서 기도를 하였더니 태기가 있

어 아들을 낳았다. 태어난 지 석 달이 안되어 백제의 견훤이 서울을 습격하니 성 안이 크게 어지러웠다. 은함은 아이를 안고 [이 절에] 와서 고하기를, “이웃나라 군사가 갑자기 쳐들어와서 사세가 급박한지라 어린 자식이 누가 되어 둘이 다 죽음을 면할 수 없사오니 진실로 대성(大聖)이 보내신 것이라면 큰 자비의 힘으로 보호하고 길러주시어 우리 부자로 하여금 다시 만나보게 해주소서.”라고 하고 눈물을 흘려 슬프게 울면서 세 번 고하고 [아이를] 강보에 싸서 관음보살의 사자와 아래에 감추어 두고 뒤돌아보며 돌아갔다.

— 『삼국유사』

- ①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석불사를,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불국사를 창건하였다.
- ② 국가재정을 낭비하는 불교행사를 억제하고, 유교사상을 정치의 근본이념으로 삼아 통치체제를 정비하도록 건의하였다.
- ③ 동리산문의 승려이자 음양풍수설의 대가로서, 개성, 평양, 한양이 국가의 중심지가 될 것을 예언하여 고려왕들의 존숭을 받았다.
- ④ 신라 말 당나라에 유학하였고, 발해의 재상 오소도의 아들 광찬과 같은 해에 급제하였다.

19. 정답 ② 최승로(고려 - 인물사)

해설 제시된 자료는 『삼국유사』 제3권 탐상에 기록된 내용으로 ‘최은함이 아들을 낳았다.’를 통하여 밑줄 친 ‘아들’은 최승로임을 알 수 있다.

② 최승로는 신라 6두품인 최은함의 아들이다. 최승로는 국가재정을 낭비하는 연등회와 팔관회 등의 불교행사를 억제하고, 유교사상을 정치의 근본이념으로 삼아 통치 체제를 정비하도록 성종에게 건의하였다.

오답해설 ① 『삼국유사』 기록에 따르면 석굴암(석불사)은 김대성이 전생의 부모를 기리기 위하여 지었고, 불국사는 현생의 부모를 위하여 세웠다.

③ 동리산문을 개창한 **해철**의 제자인 도선은 음양풍수설의 대가로 개성, 평양, 한양이 국가의 중심지가 될 것을 예언하여 고려왕들의 존숭을 받았다.

④ 최연위는 신라 말 당나라에 유학하였고, 906년에 시행된 빈공과에서 발해의 재상 오소도의 아들인 오광찬보다 높은 순위로 급제하였다. 당시 당나라에 사신으로 가 있던 오소도는 오광찬의 순위를 최연위보다 높여줄 것을 당나라에 요청하였지만, 당나라는 최연위의 제주와 학식을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20. <보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조정의 사대부들이 걸모양으로는 서로 사이가 좋으나, 마음속으로는 시기하여 심지어 은밀하게 증상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이것은 사전이 함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년에 이르러 겹병이 더욱 심하여져서 간악하고 흉악한 무리들은 주(州)를 타넘고 군(郡)을 포괄하며 산과 내를 표지로 삼아 모두 가리켜 조업전(祖業田)이라고 하면서 서로 물리치며 서로 빼앗으니, 한 이랑의 주인이 5~6명을 넘고 1년에 조(租)를 거두는 것이 8~9차례에 이릅니다. — 『고려사』

- ① 전국의 토지가 재분배 되었으며, 관료들은 경기도 땅에서 최고 150결, 최하 10결의 토지를 수조지로 받았다.
- ② 관료 등급을 18등급으로 나누어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으며, 시지는 14등까지만 주었다.
- ③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가 지급되었다.
- ④ 인품과 관품에 따라 최고 100결에서 최하 20결의 토지를 주었으며, 상층 향리에게도 주었

다.

20. 정답 ① 과전법(조선 - 경제사)

해설 제시된 자료는 『고려사』 1388년(우왕 14)에 조준이 권문세족의 토지 겸병으로 인한 상황을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양왕 때 과전법이 시행되었다.

① 과전법은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 신진 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과전은 관료들을 관품에 따라 18과(科)로 나누어 10~150결(結)을 지급하였으며, 본인 당대에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오답해설 ② 문종 때 시행된 경정 전시과는 관리의 18등급을 기준으로 현직 관리에게만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으며, 시지는 14등까지만 주었다.

③ 과전법은 전·현직 관리를 대상으로 경기 지역에 한정하여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과전법 체제에서 세습되는 토지가 많아져 새로운 관리에게 지급할 수조지가 부족해지자 조선 세조 때 직전법을 시행하여 현직 관리에게만 과전을 지급하였다.

④ 목종 때 시행된 개정전시과에서는 전·현직 관리에게 18등급을 기준으로 최고 100결에서 최하 20결의 토지를 지급하였으며, 상층 향리에게도 주었다.